

보도분류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보도일시	2023. 3. 21(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과	서비스산업유치과
담당	과장 안도현, PM 김성수(032-453-7031, 7343)

“도시민 웰빙 시설, 커뮤니티 문화 등 지키는 기반시설로 이해해야”

인천경제청, 뉴욕 맨해튼 폐고가 철도노선 도시공원 조성 로버트 해먼드 강연회 개최
 “성공적 도시개발 미래” 주제로…IFEZ 개발 관련 하이라인 프로젝트 시사점 등 언급

-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버려진 고가 철도 노선을 상징적인 도시 공원으로 조성해 주목을 받은 로버트 해먼드(Robert Hammond)씨의 강연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김진용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하이라인’의 공동 설립자이자 복합 힐링 리조트를 운영하는 글로벌기업 테르메 그룹에서 미국법인 사장 겸 최고전략책임자(CSO)인 로버트 해먼드가 21일 송도국제 도시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에서 ‘성공적인 도시 개발의 미래(Wellness and public space-the Future of successful city development)’를 주제로 강연했다고 밝혔다.
- 이날 강연에서 해먼드는 뉴욕의 하이라인 조성 배경, 공간, 도시 개발 등에 대한 노하우와 세계 도시 사례 소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도시 개발에 있어서 맨해튼 하이라인 프로젝트의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더욱 강조되는 도시의 웰빙에 대한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도시민을 위한 웰빙 시설은 커뮤니티의 문화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먼드는 맨해튼의 버려진 고가 철도 노선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공 공간으로 변화시켜 상징적인 도시 공원을 조성한 하이라인의 공동 설립자이며 20년간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진두 지휘했다.
- 그의 리더십 아래 하이라인은 혁신적인 디자인, 공공 예술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연간 8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이같은 업적을 인정받아 그는 로마상(Rome Prize), 빈센트 스컬리상(Vincent Scully Prize)를 포함한 24개 이상의 세계적인 상을 수상했다.
- 이날 강연은 인천경제청이 테르메 그룹과 투자유치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성사된 행사이며 강연 내용은 향후 인천경제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투자유치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김진용 청장은 “IFEZ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랜드마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먼드씨와 같은 창의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을 재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심과 산업, 자연 그리고 삶과 여가가 공존하는 국제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